

# 9월 22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9월 22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p>美증시, 달러 강세에 혼조..다우 0.4%↓</p>	<p>뉴욕 증시가 21일(현지시간) 지수별로 등락이 엇갈리는 혼조세로 마감했음. 2주 연속 상승에 따른 가격 부담이 높아진 가운데 유가와 금값이 하락하며 주식 매도세를 부추겼음. 다만 경기선행지수 개선으로 낙폭이 제한되었음. 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전일대비 41.34포인트(0.42%) 하락한 9,778.86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5.28포인트(0.24%) 상승한 2,138.04를, 대형주 중심의 S&amp;P500 지수는 3.64포인트(0.34%) 떨어진 1,064.66을 각각 기록했음. 이날 뉴욕 증시는 미 달러화 강세와 이에 따른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인해 약세로 출발했음. 달러 반등으로 금값이 장중 한 때 온스당 1,000달러선을 밀둔 점도 투자심리에 부담이 되었음. 특히 유가는 3% 이상 급락하며 배럴당 70달러 밑으로 떨어졌음. 최근의 증시 랠리가 일정 부분 유가 상승에 기인했던 만큼 유가 하락은 악재로 작용했음. 특히 에너지주 매도세가 강하게 일어났음. 아울러 오는 22~23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경계감을 높였음. 연준은 이번 FOMC 발표문에서 '경기회복 개선' 문구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향후 더딘 경기 회복세를 우려해 사상 최저인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다만 8월 경기선행지수가 5개월째 상승세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며 추가 하락을 막았음. 다우 지수를 구성하는 30개 종목 가운데 9개가 상승했고, 21개가 하락했음.</p>
<p>구제금융 대출 조건 완화 기대감</p>	<p>하원 정부개혁위원회 위원장인 이돌푸스 타운스 민주당 의원은 AIG에 대한 구제금융 대출 금리를 인하해주는 방안을 재무부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리스 그린버그 전 AIG 최고경영자(CEO)가 지난주 타운스 의원을 만나 금리 인화와 기간 연장을 요청한 데 따른 것임.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며 AIG 주가는 21.27% 치솟았음. 이밖에 씨티그룹이 4% 가까이 오르는 등 금융주 전반에 호재로 작용했음.</p>
<p>경기선행지수 5개월 연속 상승</p>	<p>미국의 경기선행지수가 5개월째 상승하며 경기후퇴 탈출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줬음. 컨퍼런스보드는 8월 경기선행지수가 0.6% 상승했다고 밝혔음. 이는 블룸버그와 마켓워치의 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이 전망한 0.7% 상승에 조금 못미치는 수준임. 그러나 경기선행지수는 지난 4월 이후 다섯달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음. 이전 20개월 동안은 계속해서 하락했었음. 10개 부문 가운데 제조업 납품, 금리 스프레드, 주가, 건설허가, 소비자 기대 등 5개가 상승했음. 반면 실질 화폐 공급, 실업수당 청구, 내구재 주문은 하락했음.</p>

제목	주요 내용
국제유가 사흘째 하락.. 배럴당 70불 하회	국제 유가가 21일(현지시간) 사흘째 하락세를 이어갔음. 미 달러화가 유로화와 일본 엔화에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로 결제되는 원유 선물 매도세가 강하게 일어났음.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0월 인도분 가격은 전일대비 배럴당 2.33달러(3.2%) 하락한 69.71달러로 마감했음. 컨퍼런스보드의 8월 경기선행지수가 0.6% 상승하며 5개월째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달러가 사흘째 강세를 나타내면서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했음.
칼라일, 중국 유아식 업체에 투자	20일 월 스트리트 저널(WSJ)에 따르면 칼라일 그룹의 이번 지분 매입은 최근 사모펀드들의 중국 낙농업체 지분 인수와 같은 맥락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월 콜버그와 크라비스 등 4개 펀드는 중국의 마안산 모던 파밍에 투자했으며, 지난 7월에는 호푸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등 일부 업체들이 공동으로 차이나 명뉴 데어리사 지분 20%를 8억 달러에 인수한 바 있음. 중국 낙농업계는 지난해 멜라민 파동 이후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칼라일은 이번 지분 인수가 야실리의 경영 전문화와 연구개발 능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음. 칼라일은 또 세계적 수준의 품질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
한은, 통화스왑 자금 5 억달러 추가 회수	한은은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30분간 5억달러 규모의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자금을 활용한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음. 이번 외화대출은 이번주에 만기도래하는 10억달러에서 5억달러를 회수하고 5억달러를 새로 공급하기 위한 조치임. 이번 입찰금액이 전액 낙찰될 경우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자금으로 남는 금액은 41억달러로 줄어들게 됨. 한편 이번 입찰대상물은 84일물로 결제일은 오는 9월24일, 만기일은 오는 12월17일임. 최대 응찰금액은 외국환은행별로 8,000만 달러이며, 최대 응찰한도 내에서 조건을 달리해 2종류까지 입찰이 가능. 최저 응찰금액은 100만달러로, 최저 응찰금리는 연 0.6830%임.
SK C&C 11월 상장추진..SKT·네트웍스 지분 매각 예정	21일 SK그룹에 따르면, SK는 지주회사 전환을 완성하기 위해 SK텔레콤과 SK네트웍스가 보유한 SK C&C 지분을 증시 상장을 통해 매각할 계획. SK텔레콤은 지난 18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보유중인 SK네트웍스 지분 30%를 회사 상장 후 주식시장에서 매각기로 의결. 또 SK C&C 지분 15%를 보유하고 있는 SK네트웍스(001740)도 21일 오전 이사회에 SK C&C 지분 매각을 안건으로 상정한 것으로 전해졌음 이같은 계열사들의 상장 후 지분매각 결의는 SK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마무리 하기위한 것임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